

탐정학 고등교육 학부과정 표준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정경환*, 이경한*, 염건령**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 교수**

Study on the Design of the Standard Model for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in Private Investigation Study

Cheong Kyuon-Hwan*, Lee Kyung-Han*, Yeom Keon Ryeong**
Ph. D. Candidate, Dept. Public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Major on Private Investig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 약 우리나라는 탐정업에 대한 허용이 2020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많은 탐정협회와 탐정교육기관이 민간자격 형태의 탐정을 교육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도 이와 같은 탐정산업의 확장에 발맞춰서 탐정학과 또는 탐정학 전공과정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탐정학과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탐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여러 대학의 교과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탐정시장 발전 및 탐정학의 중흥을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현장을 반영한 교육모델의 구성, 탐정학 전문 교수진의 확충, 경찰학과 범죄학 등의 과목을 탈피한 탐정학 본연의 과목 개발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탐정고등교육 모델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탐정학과 탐정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었으면 한다.

주제어 : 탐정, 탐정교육, 탐정학, 탐정학교등교육모델, 탐정학교과과정

Abstract In Korea, the permission for private investigation(PI) industry was implemented in 2020, and many PI associations and education institutions are currently training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form of private qualifications.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PI industry, universities are also establishing and operating private investigation study departments or major courses, and are constantly developing research and programs to provide education that meets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subjects of various domestic universities that already operate the detective depart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PI market in Korea and the revival of private investigation studies in the future. The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 the composition of an educational model reflecting the field, the expansion of professors specializing in PI studies, and the development of original subjects in PI studies that break away from subjects such as police science and criminology. It is hoped that suggested direction will be actively refl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tudies and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or, Training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ion Study, Higher Education Model of Private Investigation Study, Curriculuml of Private Investigation Study

Received 30 Aug 2024, Revised 19 Sep 2024

Accepted 26 Sep 2024

Corresponding Author: Yeom Keon Ryeo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kicl200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020년 탐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영업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국회의 탐정 관련 입법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법제화는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 총 3건의 탐정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탐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 역시 여당과 야당 모두 탐정업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탐정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각종 고등교육 과정(대학 과정)에 탐정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신직업으로서 탐정에 대한 긍정적 미래와 탐정 수요의 급증, 저출생 문제로 인한 학령기 학생 감소에 따른 학생 수급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허명범·김권호·염건령, 2023) [1].

대다수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들이 탐정학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학과 명칭에 '탐정'만 추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법학이나 경찰행정학과, 경비학과 등의 수업 교과과정에 일부 탐정 수업만 추가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탐정학은 아직 신생 학문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부재하고 탐정 관련 전문 교수진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탐정 관련 고등 교육과정의 신설은 탐정의 법제화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경환, 2022) [2].

탐정 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한 인원들이 이전의 불법 유사 탐정들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불법적인 탐정 행위를 하게 된다면, 탐정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전문 직업으로서의 탐정의 지위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탐정의 법제화 자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김용현, 2018) [3].

또한, 그동안 탐정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탐정은 조사가 주업무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탐정 관련 학과는 미래의 환경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김상민·선준호·염건령, 2023) [4]. 탐정학은 신직업군으로서 준법성, 윤리성,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모로 매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과과정의 설계나 운영에 있어서 구체성과 체계성을 필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성구·이주락, 2011) [5].

2. 국내·외 탐정제도 및 이론적 배경

2.1. 탐정의 정의

탐정에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탐정(探偵)' 또는 '사설탐정(私設探偵)', '공인탐정(公認探偵)', '민간조사사(民間調査士)', '민간조사원(民間調査員)'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나름의 차이를 두어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과거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부족한 범죄 수사권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인정했는데, 그것이 모두가 잘 아는 '셜록 홈즈(Sherlock Holmes)' 시리즈가 발표된 19세기 후반의 탐정이었다(염건령·박영수, 2021) [6].

어원(語源)도 형사(Detectiv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Private Detective', '사립형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영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Private Eye'라고도 부르고 있다(김정화, 2023) [7].

'탐정'과 '민간조사'의 용어는 여러 법안이나 학자들에 의하여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탐정'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추세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탐정 관련 법안에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학술 자료에서 검색 시 2000년 이후는 대다수가 탐정으로 등록된 점이나, 각 대학 기관에서 학과명에 탐정을 포함하는 등 학계의 흐름도 '탐정'으로 통일되는 추세이다.

'탐정'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 학자마다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다.

이상훈은 "타인(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약정하고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조사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하

는 사람”이라고 탐정을 정의하고 있으며(이상훈, 2018) [8], 조호대는 “타인 또는 범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의뢰를 받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호대, 2019) [9].

김환권은 “민간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고, 다른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과 정보수집을 대행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실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김환권, 2020) [10].

이상수와 염건령은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사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관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실관계와 내용을 조사하는 전문가 또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상수·염건령, 2022) [11].

2.2. 국내 탐정제도(탐정법안 발의과정)

2020년 8월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사용을 불허하였던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불법 유사 탐정업체들과 무자격자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탐정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 입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 탐정의 관리 주무부처 문제, 업무범위에 대한 논쟁 등으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최초의 탐정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에서 하순봉 국회의원이 1999년에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후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탐정 또는 민간조사에 관련한 법률(안)으로 총 13건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강동욱·윤현중, 2019) [12].

역대 국회 회기별 탐정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정리한 <표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5대 하순봉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는 ‘민간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이후 20대 국회 때부터 다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조창길·이상원, 2020) [13].

< 표 1 > 역대 국회별 탐정관련 법안 발의현황

구분	법률안	소관위원회	주무관청	비고
15대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안” (하순봉의원, 1999.)	·	·	·
17대	“민간조사업법안” (이상배의원, 2005. 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민간조사업법안” (최재천의원, 2006. 4.)	소관위 미지정	법무부	임기만료 폐기
18대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2008. 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민간조사업법안” (성윤환의원, 2009. 2.)	행정안전위원회	법무부	철회
	“민간조사업법안” (이한성의원, 2009. 3.)	행정안전위원회	법무부	철회
	“민간조사업법안” (강성천의원, 2009. 4.)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임기만료 폐기
19대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욱의원, 2012. 11.)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의원, 2013. 3.)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임기만료 폐기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욱의원, 2015. 11.)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20대	“공인탐정법안” (윤재욱의원, 2016. 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이원영의원, 2017. 7.)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21대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2020. 11.)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윤재욱의원, 2020. 11.)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2023. 4.)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출처>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24년 1월 30일.

또, 18대 국회의 이인기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19대 국회의 윤재욱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탐정’의 단독적인 법안이 아닌 경비업법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을 통해 ‘탐정’을 경비업법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중 18대 국회의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만이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승철, 2020) [14].

또한, 탐정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주무 관청에 대한 논의는 19대 국회 송영근 의원의 대표 발의안인 민간 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지막으로, 주무 관청이 경찰청으로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 등 13인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공인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선준호·김상민·염건령, 2023) [15].

이들은 모두 탐정 관련 국민의 수요, 불법 유사 탐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근절, 탐정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위해 입법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을 살펴보면 총칙, 자격(시험) 및 결격사유, 등록, 권리·의무, 벌인, 협회, 지도·감독,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인탐정의 업무 및 국민의 사생활과 권리·이익 침해 금지, ②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 시험 등 자격제도, ③ 공인탐정의 개업을 위한 등록 및 사무실 설치, ④ 공인탐정의 의뢰인 신분 확인, 사실조사부 작성, 계약사항 서면 교부 의무, 수감·조사 정보의 제한, 위법 사실조사 거부 의무, 업무 수행 원칙 등 공인탐정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사항, ⑤ 공인탐정법인 및 공인탐정협회의 설립, ⑥ 공인탐정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도·감독, ⑦ 법정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벌·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선준호, 2022) [16].

2.3. 외국의 탐정제도

연방국가인 미국은 대부분의 주(State)에서 탐정 관련 법률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면허 제도,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시험 제도 등을 각 주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탐정을 크게 공인탐정(CPI; Certificated Private Investigator)과 일반탐정(GPI; General Private Investigator)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탐정은 수사·조사 등 경력을 요구하며 면허시험을 통해 탐정업을 할 수 있는 자격(Licensed Private Detective)을 부여한다.

미국의 탐정은 주로 변호사의 위임으로 민·형사 재판의 소송 절차와 관련된 증거 수집부터 소송에 필요한 사실 조사, 개인 신원 조사, 신용 조사, 평판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강영숙·김태환, 2006) [17]. 반면 일반탐정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취업 허가증(Employee Registration Card)을 통하여 보조 업

무를 수행한다.

영국은 2001년 제정된 「민간보안산업법(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PSIA)」 이전까지 탐정업을 자유업으로 허용하여 왔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주로 조사업무 수행 경력이나 전직 경찰, 퇴역 군인, 탐정 관련 교육기관에서 국가직업인증(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취득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조성구·김태민, 2012) [18].

경비업이나 탐정업에 관한 법률적 규율의 공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간보안산업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탐정업이 경비업법 안에서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보안산업위원회(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SIA)가 설립되어 면허 발급 업무와 아울러 경비업·탐정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노진거·김일곤, 2021) [19].

영국에서 탐정은 보험회사나 사무변호사(Solicitor) 등의 의뢰로 민·형사상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증인·목격자 탐색, 보험사고 조사 등의 사실관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그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전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는데, 탐정업법을 통해 민간 영역에 대한 불법 활동,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허명범, 2022) [20].

일본에서 탐정업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관할公安위원회(公安委員會)에 신고서를 제출시 허용하는 형태의 ‘신고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탐정은 소규모 형태로 실종자 조사, 불륜 조사, 신용 조사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김태수·염건령, 2018) [21].

2.4. 선행연구 분석

우리나라에서 탐정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탐정(또는 민간조사)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탐정제도 도입의 쟁점
- ② 탐정제도의 업무 범위나 활동영역
- ③ 탐정학 교과 및 자격과정
- ④ 외국의 탐정제도와 비교연구

2.4.1. 탐정제도 도입의 쟁점

탐정 제도 도입의 쟁점은 탐정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탐정 제도의 규제와 소관 부처, 탐정 제도 도입 법안 검토 및 발전 방안,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탐정 제도 도입의 쟁점과 필요성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의 쟁점으로 한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탐정 제도가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탐정 제도의 주무 부처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그 주무 부처를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 구분하여 타당한 논리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탐정의 입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탐정 법안 발의가 통과되었을 때 탐정의 활동 및 업무 영역과 규제 등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탐정의 입법화를 위한 법안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동안 발의되었던 탐정제도의 발의안을 비교 분석하여 수정 및 보완할 부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아직 탐정의 법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기존 발의안의 분석은 앞으로 국회에서 제기할 발의안의 방향과 그동안 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보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염건령·이상수, 2019) [22].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탐정제도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제화되지 않은 탐정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순기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역기능과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구된 논문들에서는 OECD 다른 국가들에 대한 표면적인 연구를 통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제도가 없음을 이유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주로 경찰청, 법조계의 입법 의견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협업에서 유사 탐정으로 활동 중인 사람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이상원·이승철, 2020) [23].

2.4.2. 탐정제도의 업무 범위나 활동영역

탐정의 업무 범위와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탐정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탐정의 법제화를 고려하면 매우 가치가 높다. 탐정의 업무 범위는 법이나 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업무만을 규정할 수 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탐정업의 활성화만을 고려한다면 포괄적 업무 규정이 더 적합하겠지만, 그만큼 다른 직종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폐쇄적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면 스스로 만든 규정의 해 자칫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의 탐정 업무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탐정의 업무 범위에 대한 쟁점을 다수 연구하였으며, 차후 탐정의 법 제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2020) [24].

2.4.3. 탐정학 교과 및 자격과정

탐정학 교과 및 자격 과정 등에 대한 연구들은 교과 과정이나 자격 과정에 대한 필요성 또는 단순 개인 의견으로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문이 대다수이다.

단순 학술적인 측면에서 교과 과정에 대한 제언 형태의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교과 과목의 목적이나 배정, 또는 그 교과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2.4.4. 외국의 탐정제도와 비교연구

외국의 탐정 제도와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는 주로 법령이나 면허 제도 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탐정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미권 국가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탐정 제도가 도입될 시 적용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허명범, 2024) [25].

하지만, 대다수의 논문은 외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은 탐정이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구체적인 논문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3. 국내 탐정학 고등교육(학부) 교과과정 비교

3.1. 국내 탐정학 고등교육(학부)

현재 대학교 학부 과정에 탐정(학)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중부대학교, 동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이 있으며, 전문대학교나 직업학교를 포함하면 10개가 넘는 학교가 탐정 관련 학과(또는 전공)를 개설하고 있다.

먼저 서울디지털대학교는 법무경찰학부에 온라인 탐정 전공을 개설하였다. “범죄 조사 전문가, 기업 조사 전문가, 소송 자료 조사 전문가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요구에 부합한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홈페이지, 2024년 2월 5일).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온라인 과정으로 성인 학습자 및 학령기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수업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므로 현재 탐정업계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 수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대학교는 2021년 경찰경호학부에 경찰탐정수사 전공을 개설하였다. “탐정 및 수사의 전문적인 수요에 따라 전문 수사 인력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 정보와 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 다양한 탐정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홈페이지, 2024년 2월 5일).

중부대학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학과 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오프라인 최초의 대학교 학부과정이라는 점에서 탐정분야에서는 매우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경찰탐정수사학과’라는 학과의 명칭을 볼 때,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어,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탐정학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동서대학교는 미래커리어대학의 사회안전학부에 탐정 트랙을 개설하였다. “미래 안전사회를 지향하는 탐정 실무 지식 및 기법, 기업의 자산과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기업 보안 전문 역량, 산업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기법 및 실무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탐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동서대학교 홈페이지, 2024년 8월 1일). 선취업 후진학 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전히 탐정만이 아닌 사회안전학과 내에 탐정 트랙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유스티노자유대학에 경찰탐정학과를 개설하였다. “탐정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시대와 사회의 니즈(Needs)에 부응하여 증가하고 있는 보험 범죄,

교통 관련 범죄, 기업 범죄, 의료사고 영역, 실종 아동 찾기 등의 영역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과를 개설 운영 중이다(대구가톨릭대학교, 2024년 2월 5일). 이들은 1년 3학기제 교육과정으로, 전 과목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호서직업전문학교는 2021년에 ICT 융합보안계열에 사이버 수사·탐정 과정을 개설하였다.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사이버수사·탐정 과정은 3년 과정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정보보호와 사이버 포렌식 융합 학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빠른 취업으로 경쟁자보다 경력을 먼저 쌓도록 하는 것”을 전공 운영의 목표로 두고 있다(호서직업전문학교, 2024년 8월 1일).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사이버수사·탐정 과정은 “졸업 후 사이버 경찰 및 검찰 공무원, 포렌식 관련 회사, 사이버 포렌식 관련 법무법인, 보안업체, 일반 컴퓨터 관련 업체, 사이버탐정 등 민간조사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정보보안 관계 침해 대응업체, 기업의 감사 감리 업무 등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대학의 탐정 관련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디지털대학교만이 ‘탐정’만을 위한 학과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들은 경찰, 수사, 안전 등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일부 실문 결과를 보면 탐정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탐정 분야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학하기보다 경찰 분야에 대한 진출을 염두에 두고 탐정으로의 진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정경환, 2021) [26].

하지만 아직 탐정의 법제화가 진행 중임에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 수급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미래 탐정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는 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 2> 탐정학파가 개설된 대학 현황

구 분		학과명	개설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탐정전공	2021년 1학기 (온라인)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 전공	2021년 1학기 (오프라인)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사회안전부 탐정트랙	2020년 1학기 (오프라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	경찰탐정학과	2022년 1학기 (온라인)
호서직업전문학교	ICT융합보안계열	사이버수사·탐정과정	2021년 1학기 (오프라인)

3.2. 국내 교육 교과과정 범주화

우리나라 대학교(학부 과정)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학하기보다는 수능 점수 또는 내신 등급에 의해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졸업 이후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계통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교는 취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공 및 일반 교양 등의 교과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교 학부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자기 계발을 통해 성장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교과목은 학생의 취업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진술한 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 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학과 명칭에 탐정만을 명기하고 있어 탐정만의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대학원진학, 탐정, 경찰 전문 수사관, 검찰 수사관, 군 검찰 수사관, 로펌, 보험회사 등을 목표로 두고 교과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세부 교과과정은 <표 3>과 같다. 특징적인 것은 교과과정을 법률탐정 트랙, 기업탐정 트랙, 탐정문화 트랙, 탐정실무 트랙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심하여 교과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교과목 현황

1학년	“탐정학개론, 법학개론, 범죄와 사회적 위험, 탐정학 문화 콘텐츠, 디지털 AI 탐정론, 탐정윤리론, 민간조사관개념, 재정금융탐정론”
2학년	“형법총론, 비교탐정론, 탐정정보론, 민법총칙, 형법각론, 법과학증거수집론, 탐정사례연구와 창업실무”
3학년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형사소송법, 민간경비론, 디지털포렌식 수사, 반려동물탐정론, 형사법판례연구, 사이버탐정론, 산업보안탐정론, 드론탐정의 이론과 실무, 국제범죄와 탐정공조론, 공익탐정론, 아동청소년탐정론”
4학년	“교통사고조사의 이론과 실무, 화재사고조사의 이론과 실무, 의료분쟁탐정론, 보험범죄조사론, 과학수사론, 조사장비운용실습, 미아·가출인·실종자조사실무, 부동산탐정론”

<출처> 서울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 2024년 8월 1일.

중부대학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달리 오프라인으로 개설되었으며 주로 비성인 학습자(학생)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학과 명칭부터 경찰탐정수사학과로 명기되어 있는 만큼 온전히 탐정만을 위한 학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세부 교과목 현황은 <표 4>와 같다.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는 졸업 후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정부기관이나 국영 기업체 청원경찰, 법무법인 등), 민간기업(보험회사, 보안컨설팅사, 회계사 사무소, 금융기관, 도감청탐지전문업체, 변호사 사무실, 기업 법무팀, 기업컨설팅사, 무역 관련 기업, 신용정보회사, NGO 단체)” 등의 진출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표 4>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교과과정 현황

1학년	“법학개론, 경영실무론, 프리젠테이션실무, 민간경비론, 직업윤리론, 무도1”
2학년	“탐정학개론, 정보보호론, 형법총론, 산업보안론, 수사학개론, 범죄학, 형소법, 무도2”
3학년	“민법총칙, 보안관계법, 민사소송법, 화재사고조사실무, 교통사고조사실무, 보험사고조사실무, 범죄심리학, 조직관리론, 지적재산권법, 무도3”
4학년	“보험법, 탐정조사방법세미나, 물건법실무, 사이버범죄론, 기업보안실무론, 과학수사론, 창업론, 채권법실무, 드론조종 실무, 무도4”

<출처>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홈페이지, 2024년 8월 1일.

아직 탐정 관련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없는 만큼, 위 두 개 학교뿐만 아니라 탐정 관련 학과는 각 학교마다 학과의 명칭, 교육 목표, 수학하는 학생의 유형(성인 학습자, 학령기 학생), 졸업 후 진로 등에 따라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교과과정을 설계하였을 것이다.

<표 5> 탐정학과 교과과정 범주화 비교

구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부대학교
직접 관련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정학개론, · 탐정과학문화콘텐츠, · 디지털AI탐정론 · 탐정윤리론 · 현대사회범죄와탐정 · 재정금융탐정론 · 비교탐정론 · 탐정정보론 · 공익탐정론 · 반려동물탐정론 · 사이버탐정론 · 산업보안탐정론 · 국제범죄와탐정공조론 · 아동청소년탐정론 · 의료분쟁탐정론 · 보험범죄조사론 · 부동산탐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정학원론 · 탐정창업론 · 산업보안론 · 산업보안실무 · 물리보안 · 인적보안론 · 산업보안컨설팅 · 산업보안조사론 ·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세미나
간접 관련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사회적위험 · 과학수사론 · 법과학증거수집론 · 범죄수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수사론 · 범죄학개론 · 범죄심리학

	· 범죄심리학	
탐정 법률과목	· 법학개론 · 민간조사관계법 · 형법총론 · 민법총칙 · 형법각론 · 형사법판례연구	· 형법총론 · 형사소송법 · 산업보안관계법(1) · 산업보안관계법(2)
탐정 실무과목	· 탐정사레연구와 창업실무 · 디지털포렌식 수사 · 드론탐정의이론과 실무 · 교통사고조사의 이론과 실무 · 화재사고조사의 이론과 실무 · 조사장비이용실습 · 미아가출인실종자 조사 실무	· 탐정조사실무(1) · 탐정조사실무(2) · 탐정조사보고서 작성법 · 도감청탐지 및 사이버수사실무
기타 과목	· 민간경비론	· 경찰학개론 · 경찰윤리학 · 경찰인사조직론 · 경찰과인원 · 민간경비론 · 경비업법 · 재난관리론 · 경찰무도 및 체포술(1, 2) · 경비호신술(1, 2)

<출처> 정경환(2021), 재인용.

이러한 탐정 관련 학부 과정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탐정 이론 분야, 탐정 관련 법률 분야, 탐정 관련 실무 분야, 기타 분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각 탐정학과 교과과정을 범주화하게 되면 각 학교의 교과과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독립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인 만큼 탐정과 관련된 교과목을 많이 편성하였다. 특히, AI, 반려동물, 드론, 아동·청소년 등과 연계한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교과목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실무가 필요한 교과목들도 이론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중부대학교의 경우 학과 명칭에서부터 경찰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탐정학과만의 독립된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경찰 시험과 관련된 교과목과 경찰 직무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 등을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4. 탐정학 고등교육(학부) 교과과정의 표준화 모델(안)

탐정의 교과목은 탐정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소양인 탐정관련 이론이나 법률에 대한 교육과 전문(공) 지식과 기술을 위한 실무와 실습 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이수학점으로 통상 과목당 3학점으로 편성되며, 총 120~140학점 체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각 학기당 15~18학점(5~6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를 전제로 할 때 탐정학과의 교과과정은 1·2학년은 탐정관련 전공과 관련된 기초 및 교양과목 등을 위주로 편성하고, 3·4학년은 전공과 관련된 법률 및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습 등의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선준호, 2022) [27].

법률 관련 과목이나 경찰 등 다른 분야의 교과목이 다수 편성된다면, 탐정학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의심받을 것이며, 실무를 위한 기술·기법·실습 등의 교과목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성된다면 민간자격증의 과정과 큰 차별성을 둘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문적 입장에서 탐정학을 위한 기초소양과 전문(공) 기술·지식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교과과정을 설계하였다. (표준화된 교과목이 없어 교과목의 명칭을 본인이 제시하였다.)

탐정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탐정계통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 설계가 중요하다. 대학교의 학부과정은 졸업 후 탐정 직업으로 진출이 용이하도록 탐정학의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요구된다.

탐정 관련 학계 전문가인 교수진이나 현업 탐정업자들이 탐정학과 교과과정에 탐정윤리에 관한 교과목과 탐정실무에 관련한 교과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엄유진·정재훈, 2021) [28]. 따라서 이러한 학계 교수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요구, 현업 탐정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과목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탐정분야는 법제화뿐만 아니라 학문적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가는 과정에 있다. 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탐정학 석/박사과정이 양성되고 있고, 많은 학위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5년 후에는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기반으로 학제의 완결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권호, 2022) [29].

<표 6> 독립된 탐정학과 교과과정(안)

구분	교과목
법률과목	“법학개론, 탐정관계법,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민법총칙, 보안관계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보험법, 물권법실무, 채권법실무”
이론과목	“탐정학개론, 직업윤리론, 탐정경영론, 비교탐정제도론, 공익탐정론, 정보보호론, 산업(기업)보안론, 범죄심리학, 탐정윤리론(심화), 범죄학, 수사학개론, 사이버범죄론, 과학수사론, 창업론, 탐정조사방법세미나”
실무과목	“무도(1, 2), 드론조종실무, 화재사고조사실무, 교통사고조사실무, 보험사고조사실무, 사이버·디지털조사, 탐정실습(1, 2), 기업보안실무, 금융범죄 조사실무, 부동산범죄 조사실무”

<출처> 정경환(2021), 재인용.

향후 독립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교과목을 설계한다면 탐정으로 진출이 용이하도록 탐정관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실무교과목 편성으로 직업교육이나 자격 과정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하며, 학부과정에서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일반교양 등 기타과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조상현, 2020) [30]. 또한,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고 도덕성을 제고하는 탐정윤리 관련 과목의 보강 역시 필요하다.

5. 결론

탐정학과의 신설과 그 숫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 줄 전문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그 이면에는 대학들의 무한 생존 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같이 섞여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선발 숫자 감소와 함께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등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직역인 탐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탐정학과 또는 탐정학 전공을 신설한 대학들이 학문적인 독립성과 정체성을 감안하여 이들 전공 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경찰학, 법학, 행정학, 범죄학 등의 인접 전공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탐정학의 발전과 탐정시장의 팽창을 위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 개방되기는

하였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탐정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을 위해 탐정업계와 학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각 학과와 대학교에서 탐정업의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과목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탐정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탐정학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탐정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업 탐정과 탐정법인, 탐정협회 및 각종 탐정교육기관(아카데미)과의 유기적인 토론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부 경찰학과나 범죄수사학과에서 현장업무와 동떨어진 교과목을 운영하는 상황이 탐정학과에서도 발생한다면,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탐정학과 탐정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탐정학과는 학생 모집을 위한 신설 학과가 아닌, 신 직역으로서 탐정업이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탐정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로 공급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수 자원 유치를 위한 투자와 과학 탐정, 사이버 탐정 등을 양성하기 위한 많은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립 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에서 국립대학교 최초로 탐정학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와 가톨릭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행정학과 내에 탐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만들어 다수의 학자 집단을 양성하고 있는 사례,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탐정법학 전문 석박사를 양성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더 많은 학문적 발전이 이들 유수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과정, 마이크로 또는 나노 디그리 과정 등에 적용할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형 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빠른 시간 안에 탐정학 교과와 표준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의 수요와 학습자들의 요구, 연구자와 교수들의 많은 연구와 교안 개발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 분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허명범·김권호·염건령(2023). “디지털 관련 사회문제와 탐정의 역할”,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4호, 산업진흥원, pp. 177-186
- [2] 정경환(2022). “탐정학 고등교육과정의 교과목 설계에 관한 연구;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5
- [3] 김용현(2018). “우리나라 민간조사 연구의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pp. 79-100
- [4] 김상민·선준호·염건령(2023).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4호, 산업진흥원, pp. 241-250
- [5] 조성구·이주락(2011).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 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시큐리티연구, 제2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pp. 183-205
- [6] 염건령·박영수(2021).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경찰연구학회, pp. 107-128
- [7] 김정화(2023). “탐정제도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HP를 통한 우선순위 분석”,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2
- [8] 이상훈(2018). “신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pp. 185-208
- [9] 조호대(2019).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3호, 한국융합과학회, pp. 125-135
- [10] 김환권(2020). “민간조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65
- [11] 이상수·염건령(2022). 탐정학개론, 서울 : 대영문화사.
- [12] 강동욱·윤현중(2019). 탐정학개론, 서울 : 박영사.
- [13] 조창길·이상원(2020). “민간조사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3호, 통권 제80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p. 359-384
- [14] 이승철(2020). “탐정학 연구경향과 특징”,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4호, 한국치안행정학회, pp. 213-229
- [15] 선준호·김상민·염건령(2023). “탐정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2호, 산업진흥원, pp. 157-164
- [16] 선준호(2022).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7
- [17] 강영숙·김태환(2006).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12호, 한국경호경비학회, pp. 25-50
- [18] 조성구·김태민(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33호, 한국경찰학회, pp. 241-267
- [19] 노진거·김일곤(2021).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89호, 한국경찰학회, pp. 141-172
- [20] 허명범(2022). “탐정법제화에 있어서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탐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22
- [21] 김태수·염건령(2018). “공인탐정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고찰”, (계간)미스터리, 제16권 제1호, 통권 제59호, 한국추리작가협회, pp. 177-186
- [22] 염건령·이상수(2019). “공인탐정법안의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19, 한국행정학회, pp. 1221-1234
- [23] 이상원·이승철(2020). 탐정학, 서울 : 진영사.
- [24] 이상훈(2020). “공인탐정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융합과학회, pp. 170-183
- [25] 허명범(2024).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활성화 연구; 경찰조직과 탐정조직 간 협업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89
- [26] 정경환(2022). “탐정학 고등교육과정의 교과목 설계에 관한 연구;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5
- [27] 선준호(2022).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7
- [28] 엄유진·정재훈(2021). “탐정전공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미국 텍사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pp. 155-174
- [29] 김권호(2022). “국내 산업스파이 유형에 따른

탐정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9

[30] 조상현(2020). “공인탐정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pp. 242-262

정 경 환 (Cheong Kyuong Hwan)



- 2020년 3월~2022년 2월: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졸업(탐정학)
- 2022년 3월~2023년 12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박사과정 수료
- 2023년 9월~현재: 육군 중령
- 관심분야: 탐정학, 행정학
- E-Mail: burrami@gmil.com

이 경 한 (Lee Kyung Han)



- 1999년 3월~2001년 6월: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
- 2021년 3월~2022년 12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탐정학, 행정학
- E-Mail: midas9295@gmail.com

염 건 령 (Yeom Keon Ryeong)



- 1998년 9월~2000년 8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과정 수료
- 2008년 3월~2011년 8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졸업(교육학박사)
- 2023년 9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행정학, 탐정학, 통계
- E-Mail: kicl2001@naver.com